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Life of Community Residents

임영희·왕수경·윤은영·구난숙·강영자\*·박성욱\*  
손상희\*·차성란\*·이해영\*\*·김양원\*\*·이은경\*\*  
대전대학교 식품영양학과·가정관리학과\*·의류학과\*\*

Lim, Young Hee · Wang, Soo Gyung · Yoon, Eun Young · Koo, Nan Sook  
Kang, Young Ja\* · Park, Sung Ok\* · Sohn, Sang Hee\* · Cha, Sung Ran\*  
Lee, Hae Young\*\* · Kim, Yang Weon\*\* · Lee, Eun Kyung\*\*  
Dept. of Food & Nutrition · Dept. of Home Management\* ·  
Dept. of Clothing & Textiles\*\*, Taejon Univ.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problems related to quality of life and to identify residents needs for the university educational program for the community residents. The data were analyzed by using  $\chi^2$ -test, F-test and multiple range test.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d some useful implications to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for community people. Thes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n the aspect of home management, the need for education about time management was relatively high and the degree of time conflicts was varied to family size, educational level of house, housewife's employment status and outside work time. In the program area of economic life, education for enhancing ability to cope with unexpected events and impulsive consumption behavior, and education for money management technique and value clarification should be include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arents' role difficulties according to mother's age and income. Especially parents' role difficulties were children's social emot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al activity. The major problems in management of clothing and textile products were the change of textile sensation, the poor quality of accessories, and discoloration. This result suggests that education programs on manage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should be developed. In health and food management it showed that subjects were afraid of cancer, hypertension, cerebral vascular diseases in relation with food habits. Hence program of education for health and good food habits should be developed.

---

이 연구는 1996년도 교육부 지역개발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I. 서론

오늘날 급속한 산업화와 물질문명의 성장은 생활의 편의와 경제 수준의 향상 등 물질적인 측면에서 생활의 향상을 가져왔으나 정신적인 측면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활의 질은 저하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활의 질의 저하는 주부의 취업 증가, 빈번한 가족의 이동, 세대간의 가치관 차이, 가족 구조가 변화 등에 따른 것이며, 정신적 측면의 생활의 질 저하는 가족 역할간에 갈등과 긴장의 고조, 스트레스의 누적 등을 야기시키고 있으며(채정숙, 1996; 고정자, 1996), 개인적 복지 차원을 넘어 사회,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나 각 공공 단체, 문화센터 등 여러 관계 기관에서 개인의 생활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은 공공의 목적보다 영리 사업의 목적으로, 혹은 비전문적인 운영자의 식견에 의해 즉흥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허다하고,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진정 생활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채정숙, 1996). 더구나 이들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서울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지방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은 혜택을 누릴 수 없거나 많은 비용과 시간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특히 지역 주민의 요구를 반영시켜 만든 프로그램이 개발된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가까운 교육 현장에서 지역 주민에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청되는 실정이며,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방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그리고 고르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우선 지역 주민의 가정생활에서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또 그러한 어려움에 대해 교육이나 상담을 원하는 생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

도를 가정관리, 경제생활, 자녀 양육, 의생활, 건강 및 식생활 등의 각 영역에서 조사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의 질의 향상에 필요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연구문제는 세부 영역별로 다루어질 것이며, 전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 주민의 가정관리, 경제생활, 자녀 양육, 의생활, 건강 및 식생활 영역에서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을 파악한다.

둘째, 시간관리, 금전관리, 부모역할 수행, 의생활, 식생활과 건강 등 생활문제에 대한 경험 및 인식, 인지도 등을 알아본다.

셋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역 주민의 시간관리, 금전관리, 식생활과 건강 등 여러 영역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한다.

## II. 연구 배경

성인을 대상으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는 무엇보다 생활의 문제점이나 교육 요구도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사람마다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다양하므로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연경과 문숙재(1993)는 가정 생활의 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가정 경제, 건강, 가정관리, 주생활, 식생활, 가족 관계, 여가, 교육의 8가지로 설정하였고, 정은숙(1985)은 경제생활, 영양, 주거 환경, 자녀 교육, 건강, 여가 생활, 가사노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고보선·임정빈(1992)은 식생활, 건강, 교육, 주거 환경, 가족 관계, 가사노동 환경, 여가 생활, 경제 생활, 친구 및 이웃 관계, 지역사회 등을 가정 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주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은 위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된 네 가지 영역(가정관리, 경제생활, 자녀양육, 건강 및 식생활)과 의생활 영역을 추가하여 총 5개 영역으로 하였다. 이들 5개 영역으로 하게 된 연구 배경은 다음과 같다.

가정생활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정관리는 기본적으로 자원의 제약이 전제된다. 경

제발달이 미약했던 시기에는 금전자원의 제약을 해결하는 것이 가정생활의 큰 과제였다. 그러나 점차 상대적으로 희소한 자원인 시간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현대의 가정생활에서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시장으로부터 구입하여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었으나 경험적 연구에서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문숙재, 1980; 임정빈 외, 1992). 절대적인 가사노동시간은 줄지 않았으며 단지 가사노동의 내용과 범위만이 바뀌었을 뿐이다. 취업주부들은 가사노동과 함께 직장노동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역할 수행으로 많은 시간제약을 받고 있으며 전업주부들 역시 자기개발에 대한 욕구, 사회활동에 대한 관심의 증가,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친구, 친지와와 친교 등을 위한 여가시간에 대한 욕구의 증가(조성은, 1991), 새로운 아동관의 정립에 따른 자녀양육 분야의 강화(조성은, 1991)로 시간제약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시간 제약은 한 개인에게 부여된 역할이 과중하여 시간의 총 요구가 너무 커서 시간에 부담을 느끼는 시간갈등을 유발시키게 된다 이승미(1989). 시간갈등은 시간의 요구량이 너무 많아서 오는 시간갈등(hour conflict)과 시간계획시에 어느 시점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그 시각에 하지 못하거나, 필요로 하는 시간이 서로 조화될 수 없어서 일어나는 시간계획으로 인한 갈등(schedule conflict)으로 나눌 수 있다(Staines & Pleck, 1983, 김지연, 1994에서 재인용). 주부들은 전통적인 역할분담에 의해 가사노동 수행에 따른 시간갈등을 느끼게 되는데 가사노동은 노동의 특성상 시간의 요구량이 너무 많아서 오는 시간갈등은 물론 가족원들의 활동시간에 맞추어 가사노동이 수행되어야 하는데 따른 시간계획으로 인한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러나 가사노동 시간갈등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시간갈등을 전체적으로만 파악하고 있어(조성은, 1991; 최자령, 1991; 윤희리, 1996) 주부들이 경험하는 시간갈등에 대해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또한 주부들의 시간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제생활에서 인간이 당면한 근본문제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무한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소비자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금전관리는 신중하게 계획된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정자원의 유출량, 유입량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금전관리에 대한 지식과 긍정적 태도는 건전한 재정상태, 높은 재정만족도, 생활만족도와 관계가 있으며, 금전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재정 적자와 여러 가지 재무문제의 경험, 그에 따른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 인간관계에 심각한 긴장을 초래하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순미, 1993; Dessart & Kuylen, 1986). 여러선행연구들은 소득, 교육수준, 연령 등이 금전관리에 대한 동기나 능력, 그리고 금전관리 수행 정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혔다(윤희, 1986; Dessart & Kuylen, 1986; Davis & Carr, 1992).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금전관리의 수행실태에 관한 것으로 금전관리상 경험하는 문제들을 직접 다루지는 않았다. 이에, 금전관리상 경험하는 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서 금전관리 문제의 해결에 역점을 둔 사회교육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우리 나라에서는 1960년대부터 부모와 자녀관계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되었으며,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관심도 아울러 높아지기 시작하였다. 부모와 자녀관계는 자녀에게는 최초의 관계로서, 부모의 영향력이나 자녀의 흡수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결정적 관계가 된다고 한다(고애자, 1988). 자녀의 사회화과정이나 성격형성에 있어 부모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최근에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유아의 양육과 교육에 있어 초기 환경, 그 중에서도 부모를 주축으로 형성되는 가정환경은 언어, 사회, 정서, 인지 등 제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있다(이영, 1980; Bradley, 1980; 손영숙, 1985; 박선영, 정옥분, 1989; 장혜환, 1994; 박영애, 정옥분, 1996). 자녀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부모들의 올바른 자녀 양육태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아울러 자녀 양육 기술과 부모훈련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의 가족구조의 변화, 산업화에 따른 빈번한 이사, 어머니의 취업 등으로 가족원 역할은 복잡해지고, 욕구수준도 매우 다양해짐에 따라 오늘날의 부모의 역할은 과거에 일상적

으로 받아왔던 자녀양육에 대한 가족의 도움이나 지역사회 지지의 부족함으로써 부모역할 수행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자녀양육에 대한 책임은 증가하고 부모역할에 대한 요구 수준은 높아져(이영승, 1990), 자녀문제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김정옥·박순희, 1990; 김명자, 1991; 김경신·김보남, 1994; 박해미, 1994). 또한 최근 부모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의 발달단계에 대한 인식과 그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모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현대 기술산업의 발달과 고도의 경제성장은 소비생활 수준을 끌어 올려 의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새로운 섬유소재의 개발과 가공기술의 발달로 인해 다양한 용도와 기능을 가진 의류제품을 생산하게 되었다. 이러한 의류제품을 소비자가 구입후, 의복을 착용하고 관리하고는 있으나, 섬유의 재질이 다양해지고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상품정보가 부족하여, 의류제품취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사실이다. 새로운 의류제품의 개발되고 있으나, 소비자의 상품에 관한 지식은 이에 따라가지 못하므로, 오로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지식에만 의존하게 됨으로써 소비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하게 의류상품을 선택하여 관리하는 일이 어려운 상태이므로 이에 관한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에 관한 연구로는 의류제품에 관한 소비자의 불만족(민동원·이은영, 1990; 홍금희, 1991), 의류제품의 소비자에 관한 연구(전효순, 1984)등이 있는데, 이들 논문에 의하면 소비자가 의류제품에 세탁 후 나타나는 의복변형, 탈색 등 의복 취급에 관한 것 등이 많았고, 이에 관한 고충이 크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의류제품에 관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최근 생활 수준의 향상과 사회 환경의 변화로 건강과 영양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고는 있으나 영양 과잉이나 잘못된 식습관 및 생활습관에 의해 초래되는 만성퇴행성 질환(당뇨병, 동맥경화증, CHD,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사망원인(통계청, 1995)을 살펴보면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퇴행성질환과 사고 등 생활양식이 원인이 되는 질병이 모든

사망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활양식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영양 문제는 더욱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US DHHS, 1995).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건강증진법을 제정 공포하였으나(보건사회연구원, 1995) 목표의 제시와 사회적 지원 대책의 기초 작업만을 한 상태로써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이나 각 지역 주민을 위한 최우선 사업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한 실정이므로 성인병이나 사고 예방의 위험 요인이 되는 생활양식 및 식생활 개선에 역점을 둔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김혜련, 1996; WHO, 1990).

### III.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은 가정관리, 경제생활, 자녀양육, 의생활, 건강 및 식생활 영역으로 나누어 각 영역별로 세부 연구문제를 달리하여 조사내용을 설정하였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문제점은 생활의 각 영역별로 어려움을 겪는 주요 대상자가 다르다. 즉 성별, 연령, 경제적, 사회적 위치등 여러 요인에 따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영역이 차이가 있어 각 영역별로 조사대상자를 달리하여 조사하였다. 대전 시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조사 기간은 예비 조사와 설문지 수정을 거쳐 본 조사는 1996년 11월에서 1997년 1월까지 실시하였다.

#### 1. 가정관리 영역

##### 1) 연구문제

(1) 주부들의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갈등과 여가 시간갈등은 차이를 보이는가?

(2) 주부들의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라 시간관리 교육 요구도는 차이가 있는가?

##### 2) 측정도구 및 조사내용

시간갈등을 측정하는 척도는 조성은(1991), 윤혜리(1996)의 연구를 참고로 7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문항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0.86$ 이었다. 시간갈등은 내용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갈등에 2문항, 소극적 여가시간갈등에 2문항, 적극적 여가시간갈등에 3문항을 포함시켰다. 시간관리 교육 요구도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1개 문항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5)...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 3) 조사대상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는 300부를 배부하여 284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층은 평균 40.8세였으며, 한달 수입은 218만원이었고, 교육정도는 고졸 48.8%, 대졸 25.8%였고 전업주부의 비율은 62.7%였다.

## 2. 경제생활 영역

### 1) 연구문제

(1) 주부들의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도와 금전관리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어떠한가?

(2) 주부들의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도와 금전관리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주부의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측정도구 및 조사내용

금전관리상의 문제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은 Churaman(1989)의 PMMP 질문지에서 추출한 것이다. Churaman은 개인의 재무의사결정과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학적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 PMMP(Personal Money Management Profile) 척도를 개발하였다. Churaman의 PMMP 질문지는 모두 10개 하위영역에 총 41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는 '소비적 성향', '가족내의 불일치', '자기통제력의 부족', '재정적 준비도', '재정적 만족', '저축능력'의 6개 하위영역별로 각각 한 문항씩을 선정하였고, 기타 미분류 하위영역에서 3개의 문항을 택하여 총 9개 문항으로 주부의 금전관리상의 문제를 대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들 문항은 '매우 그렇다(5)... 전혀 그렇지 않다(1)'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금전관리 교육요구도는 '금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의 1개 문항에 대해서 '매우 필요하다(5)... 전혀 필요치 않다(1)'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육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하였다.

### 3) 조사대상

가정관리 영역과 같은 조사대상자에게 설문지 300부를 배부하여 292부를 최종적인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가정관리영역의 대상자와 같다.

## 3. 자녀양육 영역

### 1) 연구문제

(1) 어머니 특성, 연령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2) 가족의 특성(월수입)과 자녀의 특성(연령)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측정도구 및 조사내용

자녀양육 측정도구는 부모역할에 대한 국내의 여러 척도들(Nye, 1976, 방은령, 1986, 최경순, 1992)을 종합하여 위에서 분류된 영역별로 문항들을 구성하여 부모교육 전문가 5인에게 내용타당도를 최종적으로 다섯 영역(신체, 건강, 안전/23문항; 발달상태/29문항; 교육활동 및 환경제공/7문항; 바른생활습관/7문항; 훈육 및 지도/17문항)의 총83문항이 선정되었다.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전혀 어렵지 않다(1점)부터 매우 어렵다(5점)의 Likert식 응답범주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완성된 질문지의 신뢰도 검증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  $\alpha$  계수)가 영역별로 .72-.92의 범주로 나타나 매우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다.

### 3) 조사대상

조사대상자 및 자료수집은 직업, 거주지역, 경제수준 등의 계층간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별로 1개-2개의 어린이집, 유치원을 선정하였으며, 자료수집은 가정통신문과 함께 유아편을 통해 어머니들이 설문지를 작성하여 보내는 질문지법으로 실시하였다(250부 배포, 213부 회수로 회수율은 85%임).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평균 33.49세이며,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56%, 소득수준은 월평균 221.90만원이었다. 전업주부가 75.1%,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월등히 많아 분포(85.4%)를 나타냈다.

## 4. 의생활 영역

### 1) 연구문제

(1) 소비자 측면에서 의류제품 취급에 관한

문제점과 소비자의 불만 사항은 무엇인가?

(2) 의류제품에 부착된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 정도와 세탁에 관한 소비자 인도는 어떠한가?

(3) 의복에 의한 피부장해의 경험 정도와 종류를 알아보고, 의복구입시 첫수 선택 방법은 어떠한가?

#### 2) 측정도구 및 조사내용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하여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의류제품 취급에 관한 문제점 및 이해도 10문항, 의류제품에 관한 불만에 관한 사항 5문항, 세탁에 관한 사항 5문항 및 인구통계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각 변인에 대한 측정문항은 선행연구(최해운, 1992; 박찬애, 1990; 林泰子 등, 1993)를 토대로 추출된 문항과 연구자가 추가한 문항들로 구성되었으며, 예비조사를 통하여 수정 보완하였다.

#### 3) 조사대상

20대에서 40대 사이 연령층의 학생 207명 및 주부 269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질문지는 총 500부 중 480부가 회수되었으며, 미완성된 것을 제외하고 총 476부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 5. 건강 및 식생활 영역

#### 1) 연구문제

(1) 식습관과 건강상태의 관계와 지역 주민의 건강문제는 무엇인가?

(2) 지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교육 요구도는 무엇인가?

#### 2) 측정도구 및 조사내용

연구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는 식습관과 건강에 관한 3문항, 경험했거나 우려하는 질병에 관한 문항 19문항, 교육요구도에 관한 사항 2문항 등으로 구성하였다. 식습관 평가는 대한영양사회(1992)가 개발한 식습관조사표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고, 질병에 관한 조사는 통계청(1997)의 사망통계연보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 3)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20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였고, 질문지는 총 600 부중 완전하게 대답한 516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연령은 평균 40.5세였으며, 한달 수입은 100-200만원이

42.6%로 가장 많았다. 교육 정도는 고졸이 38.2% 대졸이 31.4%였다. 자택에 주거하는 사람이 74.3%였다.

수집한 자료의 통계분석은 조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각 영역별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 분포, 백분율, 평균 등을 산출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교육 요구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t검증, ANOVA,  $\chi^2$  검증을 SAS package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 처리하였다.

## IV. 결과 및 해석

### 1. 가정관리 영역

주부들이 경험하는 가사노동시간갈등과 여가시간갈등의 실태를 살펴보면 가사노동시간갈등이 평균 3.31, 소극적 여가시간갈등은 평균 3.32 적극적 여가시간갈등은 평균 3.01이었다(표1).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간부족을 크게 느끼며, 가사노동을 수행한 후에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소극적인 여가시간의 부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간관리교육에 대한 요구 정도는 교육이 '필요하다'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49.6%로 조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시간관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교육 요구도의 평균점은 5점을 기준으로 할 때 3.35점으로 중앙값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갈등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결과(표 2) 가사노동시간 갈등은 가족수, 첫 자녀연령,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취업유무, 주부의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노동시간갈등은 가족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가족수가 4인 이상인 집단이 3인 이하인 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시간갈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연령에 따라 가사노동 시간갈등은 유의한 차이가 있어 자녀가 없는 집단이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첫 자녀의 연령에

&lt;표 1&gt;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 갈등과 시간관리 교육 요구도

N(%)

문항		매우 그렇다	그런편이 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가사노동 시간갈등	자녀들에게 많은 신경을 써주지 못해 학업성적이나 생활습관이 나빠질까 걱 정이 된다	48 (17.2)	112 (40.1)	52 (18.6)	51 (18.3)	16 (5.7)	3.31
	가족들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하는 것같아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32 (11.3)	84 (29.8)	80 (28.4)	84 (29.8)	32 (11.3)	
소극적 여가시간 갈등	피로를 풀 수 있는 휴식시간이 짧아서 힘이 든다	23 (8.1)	99 (35.0)	80 (28.3)	70 (24.7)	11 (3.9)	3.32
	항상 피로가 회복되지 않아서 힘이 든 다	23 (8.1)	83 (29.2)	96 (33.8)	69 (24.3)	13 (4.6)	
적극적 여가시간 갈등	시간이 부족하여 동창모임이나 친목모 임 등에 참석하지 못해 마음이 걸린다	13 (4.6)	67 (23.7)	74 (26.1)	97 (34.3)	32 (11.3)	3.01
	가족들과 함께 모여 편안한 시간을 즐 기기가 어렵다	20 (7.1)	71 (25.1)	81 (28.6)	86 (30.4)	25 (8.8)	
	가족을 떠나서 나 자신을 위한 취미시 간을 가지기가 어렵다	52 (18.3)	88 (31.0)	75 (26.4)	48 (16.9)	21 (7.4)	
시간관리 교육의 요구도		29 (10.2)	112 (39.4)	85 (29.9)	46 (16.2)	12 (4.2)	3.35

따른 차이이기보다 자녀의 유무에 따른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주부 교육수준에 따른 가사노동 시간갈등의 차이는 고등학교 졸업인 주부 집단이 중학졸업 이하인 경우와 대학졸업 이상인 경우보다 가사노동시간 갈등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취업의 경우 취업한 주부집단이 전업주부집단에 비해 가사노동시간 갈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근무시간이 긴 집단에서 가사노동시간갈등이 높았다.

소극적인 여가시간갈등은 가족형태, 가족수, 주부의 교육수준, 주부 취업유무, 주부 근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극적인 여가 시간갈등은 확대가족의 주부가 핵가족의 주부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확대가족의 주부들이 계속되는 가족관계상의 긴장 속에서 지내기 때문에 편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가족수가 많은 집단일수록 소극적인 여가시간갈등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수준에 따른 소극적 여가시간갈등은 고졸집단의 주부가 가장 높았으며 대졸이상의 집단은 가장 낮았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인 경우 사용 가능한 경제적, 인적 자원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인 여가시간갈등은 주부취업유무, 주

부근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적극적 여가시간갈등은 가사노동시간갈등이나 소극적 여가시간갈등과는 달리 주부취업, 주부의 근무시간과 같은 직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부의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시간관리 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표3) 가족수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수가 4명인 집단이 가족수가 3명인 이하이거나 5명 이상인 집단에 비해 교육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수가 적은 경우 시간갈등의 수준이 낮을 것이며, 반면 가족수가 많은 경우 시간갈등이 높더라도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이는 교육수준이 높은 주부인 경우 사용 가능한 경제적, 인적 자원을 많이 소유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적극적인 여가시간갈등은 주부취업유무, 주부근무시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적극적 여가시간갈등은 가사노동시간갈등이나 소극적 여가시간갈등과는 달리 주부취업, 주부의 근무시간과 같은 직업적 특성을 나타내는 변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주부의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가사노동시간 및 여가시간갈등의 차이

변인	시간갈등	가사노동시간갈등		여가(소극)시간갈등		여가(적극)시간갈등	
		평균	Duncan	평균	Duncan	평균	Duncan
가족형태	핵가족 (244)	6.55		6.20		8.97	
	확대가족( 33)	6.97		7.15		9.70	
t값		1.25		2.97**		1.54	
가족수	2-3인 ( 61)	5.82	B	5.82	B	8.49	
	4인 (122)	6.79	A	6.28	A B	9.14	
	5인 이상 (101)	6.87	A	6.62	A	9.23	
F값		7.16***		3.73'		1.80	
첫 자녀 연령	자녀없음( 16)	4.75	B	5.24		8.00	
	학령전 ( 58)	6.76	A	6.47		9.43	
	초등학교( 43)	7.12	A	6.14		8.79	
	중,고등 ( 38)	6.79	A	6.32		8.95	
	대학교 ( 49)	6.90	A	6.69		9.16	
	취업,가사( 33)	6.42	A	6.38		8.64	
	결혼 ( 36)	6.19	A	6.31		9.83	
	F값		4.31***		1.71		1.67
주부교육	중졸이하 ( 72)	6.41	B	6.26	A B	9.18	
	고졸 (138)	6.99	A	6.56	A	9.21	
	대졸이상 ( 73)	6.13	B	5.88	B	8.55	
F값		6.08**		3.32*		1.80	
주부연령	20대이하 ( 44)	6.05		6.21		9.23	
	30대 ( 84)	6.86		6.06		8.79	
	40대 ( 97)	6.72		6.45		8.72	
	50대이상 ( 59)	6.50		6.48		9.75	
F값		1.95		0.94		2.43	
주부취업 여부	전업주부 (178)	6.38		5.88		8.54	
	취업주부 (106)	7.03		7.02		9.85	
F값		2.89**		5.34***		4.51***	
주부근무시간	0시간 (173)	6.33	B	5.86	B	8.50	B
	1- 8시간 ( 13)	7.39	A	7.00	A	9.62	A B
	8-10시간 ( 44)	6.95	A B	6.84	A	9.57	A B
	10시간이상( 35)	7.44	A	7.54	A	10.46	A
F값		5.42**		11.82***		7.43***	

주부의 개인 및 가정환경변인에 따라 시간관리 교육 요구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분산분석을 한 결과(표3) 가족수만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가족수가 4명인 집단이 가족수가 3명인 이하이거나 5명 이상인 집단에 비해 교육 요구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수가 적은 경우 시간갈등의 수준이 낮을 것이며, 반면 가족수가 많은 경우 시간갈등이 높더라도 인적자원이 많기 때문에 시간관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덜 인식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2. 경제생활 영역

1)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

<표 3> 주부의 개인 및 가정환경 변인에 따른 시간관리 교육 요구도의 차이

시간관리 교육 요구도	평균	Duncan	F값
가족수 2 - 3인(61)	3.01	AB	4.26*
4인(122)	3.55	A	
5인 이상(101)	3.12	B	

p< .05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도를 보면 (표 4), 응답자의 가장 많은 비율(40.4%: '매우 그렇다'와 '대체로 그렇다'를 합한 값)이 동의 하였고, 평균값도 가장 높았던 문항은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나의 재정적인목표달성을 방해하곤 했다'로서, 금전관리에서

장래의 불확실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됨을 나타내었다.

이는 금전관리 교육내용 중에서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교육내용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어떤 특정한 금전문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편이다'에 동의한 응답자는 21.6%로써, 나머지 약 80%의 응답자는 금전관리상의 정보와 지식획득에 어려움을 느끼며, 재정적 준비도가 부족함을 나타내고 있다. 자신이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만족'하는 응답자는 35.4%로서, 약 2/3의 응답자는 자신의 돈 관리방식에 만족하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약 15%의 응답자는 '나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 '우리 가족은 돈문제로 많이 다툰다', '나는 재정을 관리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만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의 문항들에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답하여, 소비적 성향, 가족내의 불일치, 재정관리능력의 부족이 문제가 됨을 나타내었다. 11.7%의 응답자는 '돈을 쓰는데 있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고 답함으로써,

자기통제력이 부족함을 나타내었다.

이로써 대다수의 응답자는 소비적 성향이 별로 없으며 가족내의 일치, 재정관리능력, 자기통제력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는다'라고 응답한 주부는 64%로서, 약 2/3의 응답자는 저축능력이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한편, '금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도움이 필요하다'와 같이 급박한 재무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응답자도 13.1%가 되었다.

(표 5)에서는 금전관리상 문제 경험 및 인식정도에 대한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의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연령별 차이를 살펴보면, 30대 주부는 다른 연령대의 주부에 비해 재정적 준비도가 높았고 40대 주부는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또한 20대와 30대는 저축 능력에 있어서 40대와 50대이상 주부에 비해 높은 점수를 나타냄으로써, 30대이하의 젊은 사람들의 장래를 위한 저축 동기가 그 이상 연령대에

<표 4>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도와 금전관리 교육 요구도

N(%)

문항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평균
소비적 성향	나는 충동적으로 물건을 사는 경향이 있다	4 (1.4)	40 (13.7)	80 (27.5)	114 (39.2)	53 (18.2)	2.41
가족내의 불일치	우리 가족은 돈문제로 많이 다툰다	8 (2.7)	36 (12.3)	81 (27.7)	116 (39.7)	51 (17.5)	2.43
자기통제력의 부족	나는 돈을 쓰는데 있어 자신을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4 (1.4)	30 (10.3)	66 (22.7)	134 (46.0)	57 (19.6)	2.28
재정적 준비도	어떤 특정한 금전문제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는 편이다	8 (2.7)	55 (18.9)	113 (38.8)	103 (35.4)	12 (4.1)	2.81
재정적 만족	나는 내가 돈을 관리하는 방식에 만족한다	17 (5.8)	86 (29.6)	122 (41.9)	55 (18.9)	11 (3.8)	3.15
저축 능력	미래를 위해 자발적으로 저축할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고 믿는다	47 (16.1)	140 (47.9)	68 (23.3)	28 (9.6)	9 (3.1)	3.64
재정적 장애 경험	예기치 않았던 일들이 자꾸 생겨서 나의 재정적인 목표달성을 방해하곤 했다	21 (7.2)	97 (33.2)	106 (36.3)	59 (20.2)	9 (3.1)	3.21
재정관리 능력의 부족	나는 재정을 관리하는데 보통 다른 사람만큼 잘 하지 못하는 것 같다	1 (0.3)	43 (14.7)	118 (40.4)	110 (37.7)	20 (6.8)	2.64
급박한 재무위기	나는 지금 금전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 도움이 필요하다	11 (3.8)	27 (9.3)	84 (28.9)	117 (40.2)	52 (17.9)	2.41
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		33 (11.3)	125 (42.8)	99 (33.9)	30 (10.3)	5 (1.7)	3.52

<표 5> 연령과 교육수준에 따른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도 차이

문항	연령					교육수준			
	20대	30대	40대	50대이상	F값	중졸	고졸	대졸이상	F값
소비적 성향	n.s.					2.06	2.41	2.74	9.82***
						C	B	A	
자기통제력의 부족	n.s.					2.06	2.30	2.46	3.50**
						B	AB	A	
재정적 준비도	2.78	2.99	2.66	2.81	2.25*	2.60	2.85	2.92	2.81*
	AB	A	B	AB		B	AB	A	
저축능력	3.91	3.81	3.43	3.53	3.97***	3.44	3.66	3.81	2.83*
	A	AB	C	BC		B	AB	A	

\*p<.1 \*\*p<.05 \*\*\*p<.01

n.s.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표 6> 소득과 자산수준에 따른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도 차이

	소득수준					자산수준				
	150만 미만	150-200	200-250	250만 이상	F값	4천만 미만	4천만-8천만	8천만-1억2천만	1억2천만 이상	F값
소비적 성향	n.s.					2.54	2.40	2.61	2.19	3.07*
						A	AB	A	B	
가족내의 불일치	2.56	2.53	2.61	2.16	3.77*	2.67	2.56	2.51	2.16	4.09**
	A	A	A	B		A	A	A	B	
자기통제력의 부족	2.42	2.05	2.50	2.17	3.62*	2.46	2.24	2.44	2.08	2.89*
	A	B	A	AB		A	AB	A	B	
재정적 만족	n.s.					2.77	3.12	3.16	3.36	4.86**
						B	A	A	A	
재정관리 능력의 부족	n.s.					2.85	2.49	2.80	2.52	3.63*
						A	B	A	B	
급박한 재무위기	2.82	2.60	2.32	2.15	6.11***	2.85	2.56	2.37	2.09	7.39**
	A	AB	BC	C		A	AB	BC	C	

\*p<.1 \*\*p<.05 \*\*\*p<.01

n.s. 유의한 차이가 없어서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음.

비해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수준별 차이를 보면, 대졸이상 주부는 중졸이하의 주부에 비해 자발적인 저축 능력과 재정적 준비도에서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나, 소비적 성향이나 자기통제력의 부족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다.

(표 6)은 금전관리상 문제 경험 및 인식도에 대한 소득수준과 자산수준에 따른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급박한 재무 위기에 처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돈문제로 인한 갈등에 있어서도 소득수준별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월

소득 250만원이상이 되는 주부의 경우 다른 소득수준의 주부에 비해 가족내의 불일치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에 따라 자기통제력의 부족정도도 다른 것으로 나타났나 일관성 있는 방향이 아니어서 소득수준외의 다른 변수와 복합적인 관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한편,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급박한 재무 위기에 처해 있어 도움이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가족내의 불일치 정도가 높았으며, 재정적 만족정도가 낮았다. 소비적 성향이나 재정관리능력, 자기통제력 등은 자산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자산수준

에 따른 비례 또는 역비례의 일관성있는 관계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2) 금전관리 교육요구도

(표 4)에 의하면, 효율적인 금전관리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54.0%의 응답자가 '필요하다' 또는 '매우 필요하다'고 답하였고, 평균값 3.52로서 대체로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은 제 변인에 따른 금전관리교육에 대한 요구도의 차이를 분산분석한 결과 유의한 차이만을 제시한 것이다. 교육요구도는 연령이나 교육수준, 소득수준에 따라 아무런 차이가 없었으나, 자산수준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자산수준이 낮을수록 금전관리에 대한 교육요구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자산수준에 따른 금전관리 교육요구도 차이

자산수준	평균	Duncan	F값
4천만원 미만	3.81	A	3.14*
4천만 - 8천만	3.59	AB	
8천만 - 1억2천	3.44	B	
1억2천만원 이상	3.37	B	

\*p<.1 \*\*p<.05 \*\*\*p<.01

3. 자녀 양육 영역

자녀양육에서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부모역

할 수행에서 교육활동 및 환경제공면(M=2.93, SD=0.66)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사회성 발달과 정서발달이 자녀의, 제발달영역(M=2.86, SD=0.58)에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특성(연령)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연령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나타났다. 부모역할 중 자녀의 제발달(인지, 정서, 사회성, 신체)을 도울 수 있는 양육수행(M=2.98, p<.10),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시키기(M=2.85, p<.05), 사회규범이나 가치관을 심어주는 훈육이나 지도(M=2.96, p<.10)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경우(30세 이하)가 높은 연령 집단에 비해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연령이 낮은 경우에 대체로 첫째 아이를 기르고 있어 자녀양육의 경험이 부족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가족의 특성(소득수준)과 자녀의 특성(연령)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운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9)와 같다.

가족의 특성 중 월평균 소득이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월수입이 낮은 경우(150만원 이하)가 자녀의 신체, 건강, 안전을 위한 부모역할 수행(M=2.93, p<.05), 자녀의 제발달영역(M=3.03, p<.01), 훈육 및 지도(M=3.05, p<.01)

<표 8> 어머니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운 정도

변인	내용(N)	부모역할 영역			신체 건강, 안전			발달상태			교육활동, 환경제공			생활습관			훈육 및 지도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어머니의 연령	30세 이하 (41)	2.85	.56	1.11	2.98	55A*	2.32*	3.07	.70	1.48	2.85A*	.75	3.78**	2.96A*	.70	2.27*			
	31~35세 (107)	2.71	.59		2.78	58B		2.87	.67		2.54 B	.75		2.70 B	.75				
	36세 이상 (54)	2.80	.51		2.92	59B		2.92	.62		2.78AB	.69		2.87AB	.68				

\* P < .10 \*\* P < .05

# Duncan's test 결과임

에서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경우 주거 환경의 안전문제, 제발달을 촉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활동경험시키기, 사회·문화적 규범이나 가치관 심어주기 등의 역할 수행에서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체로 부모의 교육수준과 직업유형과 함께 고려하여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은 집단의 경우,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에 앞서 생계유지를 위한 문제가 더욱 우선된 것으로 여겨진다.

4. 의생활 관리 영역

1) 의류제품 취급에 관한 문제점과 소비자의 불만

의류제품 취급시의 문제점으로는 (표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즉, 주부와 학생 모두 촉감 변화를 가장 많이 경험하였으며, 다음이 부속품 불량, 색상변화, 파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 대부분이 의류제품 취급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가족 및 자녀 특성에 따른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운 정도

변인	부모역할 영역 통계치 내용(N)	신체 건강, 안전			발달상태			교육활동, 환경제공			생활습관			훈육 및 지도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M	SD	F값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53)	2.93A*	.54	3.27*	3.03A*	.53	5.05**	3.08	.62	1.96	2.83	.63	1.68	3.05A*	.65	5.90***
	151~200만원 (67)	2.69B	.57		2.71C	.54		2.87	.68		2.61	.80		2.61C	.73	
	201만원 이상 (79)	2.72B	.57		2.89B	.63		2.88	.67		2.63	.75		2.81B	.74	
자녀의 연령	5세이하 (44)	2.87	.60	1.42	2.89A*	.55	2.36*	3.00	.61	1.91	2.76	.75	1.85	2.88A*	.65	3.23**
	6세 (77)	2.78	.52		2.95A	.56		3.00	.60		2.74	.71		2.91A	.68	
	7세이상 (81)	2.69	.58		2.75B	.61		2.82	.74		2.55	.77		2.64B	.80	

\* p < .10 \*\* P < .05 \*\*\* P < .01

# Duncan's test 결과임

자녀의 특성에 따라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F-test를 실시한 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변인은 자녀의 연령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과 관련된 영역과 훈육과 지도영역에서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6세이하), 부모역할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어린 경우 인지, 정서, 사회성 발달 등을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나 보다 쉬운 방법을 모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회 규범이나 가치관과 가족 공동체 의식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을 유아기 자녀에게 교육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표 10> 의류제품 취급시 문제점 경험여부 N(%)

문제점	주부	학생
세탁시 수축	164(61.2)	156(76.8)
색상변화	232(86.6)	167(82.3)
파손	206(76.9)	156(76.8)
표면변화	215(80.2)	167(82.3)
부속품 불량	252(94.0)	187(92.1)
촉감 변화	266(99.6)	202(99.5)

의복의 구입, 사용할 때 의류제품에 관련된 품질표시에 관하여 불만을 느꼈던 경험을 한 경우는 주부는 91.1%, 학생 87.2%였다. 이 불만에 대하여 주부 51.1%, 학생 45.0%가 불만을 제기 하였으며, 그 중 주부 87.1%, 학생

87.3%가 판매처에 불만을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불만의 이유는 주된 것은 주부, 학생 모두 세탁후의 변형과 탈색 등이 가장 많아 50%이상을 차지하였고, 다음은 품질자체의 불량인 주부 28.3%, 학생 27.4%, 서비스 불량이 주부 10.8%, 학생 15.1%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일본의 경우도 같았는데(猪子&岡野, 1985), 이것은 소비자들이 의복의 소재로서 천연섬유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성섬유에서도 천연섬유와 같은 성질을 가지도록 가공을 하므로, 의복의 관리도 이에 맞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의류제품 취급에 관한 지식이 섬유제품의 기술발달 속도를 따라가지 못함으로 인해 생기는 것이 가장 크다고 하였다. 그 다음이 기업측의 제품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전달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소비자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의복에 의한 피부장해는 주부 49.6%, 학생 44.8%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종류는 (표11) 주부는 정전기로 인한 문제와 의복이 밀착되었을 때 가려움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생은 정전기 때문에 따갑고 불쾌했다가 가장 높고, 의복이 밀착되어 스쳐서 가려웠다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모두 표백에 관한 표시에 대한 이해가 낮았고, 다음으로 섬유에 관한 표시에 대한 이해가 낮았으며, 주부는 세탁에 관한 사항을 또 학생은 다림질 및 건조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는 학생들은 의복을 관리할 때 다림질에 중점을 두고 있고, 주부는 모든 가족의 의생활을 관리해야 하므로 세탁에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취급에 관한 이해도는 학생이 표백에 관한 이해도를 제외하고 50% 이상이 이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의류제품 취급시의 문제점은 촉감, 색상, 표면의 변화를 80% 이상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소비자들이 취급표시를 잘못 이해하였거나 기업측의 정보부족에 의해 의류제품에 문제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도 유럽과 같이 기업에서는 품질표시나 취급표시와 더불어 성능에 관한 표시를 하여 정보서비스를 하고, 대학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한 소비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시 섬유조성과 의류제품 취급방법과 표백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3) 세탁에 관한 소비자의 인지도

선행연구(최해운, 1992)로 부터 의류제품 취급시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세탁에 관

<표 11> 의류제품에 의한 피부장해

N(%)

내 용	주부	학생	$\chi^2$
의복이 밀착되어 스쳐서 가려웠다.	48(47.5)	42(30.7)	18.2**
땀을 흡수하지 못하여 불쾌감을 느끼거나 습진이 생겼다.	12(11.9)	19(13.9)	
정전기 때문에 따갑고 불쾌했다.	20(19.8)	67(48.9)	
빨갳게 되거나 부어 올랐다.	19(18.8)	8(5.8)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벗겨졌다.	1(0.73)	1(1.0)	
계	100(100.0)		137(100.0)

\*\*p<.01

이는 의복에 의한 피부장해는 의복의 화학적인 성상, 또는 후처리 등의 조제에 의한 장해보다는 물리적인 것에 의한 장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나, 의복을 입는 방법을 개선하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2) 소비자의 의류제품의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

소비자의 섬유제품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는 (표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부와 학생

한 소비자의 인지도를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의류제품의 세탁은 어떻게 할 것인가의 결정은 학생과 주부 모두 60%정도가 의복에 부착된 취급주의표시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하여 세탁한다고 하였고, 다음은 학생 25%, 주부 27%가 의복에 부착된 취급표시대로 한다고 하였다. 취급표시에 물세탁과 드라이크리닝이 동시에 부착되어 있을 때의 세탁방법에 관한 선택은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결과는 (표13)과

같다.

학생은 물세탁(41.6%)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몇 차례 드라이크리닝 후 물세탁(33.3%)이었던 반면, 주부는 몇 차례 드라이크리닝한 후 물세탁(52.1%)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학생은 주부에 비하여 경제적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20-30대에는 거의 정상혈압을 유지하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비율이 낮아져 60세 이후에는 정상혈압을 유지하는 비율이 40.7%밖에 되지 않았다. 잠을 잘 자는 가에는 51.7%가 잘 잔다고 대답하였고, 13.8%는 잘못 잔다고 대답하였는데 60세 이상에서 잠을

<표 12> 소비자의 의류제품 취급표시에 대한 이해도

N(%)

	매우 잘 안다		아는 편이다		보통이다		모르는 편이다		매우 잘 모른다		$\chi^2$
	주부	학생	주부	학생	주부	학생	주부	학생	주부	학생	
세탁표시	28(10.5)	18(8.8)	155(57.8)	135(65.9)	81(30.2)	48(23.4)	3(1.1)	2(1.0)	1(0.4)	2(1.0)	4.2
표백표시	9(3.4)	5(2.4)	133(50.2)	90(43.9)	109(41.1)	89(43.4)	12(4.5)	18(8.9)	2(0.8)	3(1.5)	3.9
다림질 및 건조	18(6.8)	34(16.6)	151(56.8)	125(61.0)	84(31.6)	38(18.5)	10(3.8)	7(3.4)	3(1.1)	1(0.5)	10.2*
섬유의 조성	19(7.1)	16(7.8)	127(47.7)	114(55.6)	99(37.2)	57(27.8)	21(7.9)	17(8.3)	0(0)	1(0.5)	5.2

\*p<.05 \*\*p<.01

<표 13> 의류제품의 취급표시에 물세탁과 드라이크리닝 모두가 표시되어 있을 때 세탁 방법선택

N(%)

내 용 (세탁방법)	학 생	주 부	$\chi^2$
물세탁	86(41.6)	84(17.7)	18.7**
드라이크리닝	52(25.1)	44(16.5)	
몇 차례 드라이크리닝후 물세탁	69(33.3)	139(52.1)	
계	207(100.0)	267(100.0)	

잘못 자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는 30.6%가 심하다고 대답하였으며 40-50세가 35.5%로 가장 높았고 60세 이상이 17.5%로 가장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20.6%는 아주 건강하다고 대답하였으며, 40.5%는 건강한 편이라고 대답하였고, 7.0%는 현재 병을 앓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이가 증가할수록 병을 앓고 있는 비율이 증가하여 노인의 21.5%가 현재 앓고 있다고 대답하였다.

2) 건강 및 식생활 태도

식생활의 전반적인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25항목에 해당하는 식습관에 관한 질문을 한 결과 100점 만점 중 식생활 점수는 남자가 69.0이고 여자는 72.6점으로 여자의 식습관 점수가 더욱 높았으며, 이는 여자의 식습관이 남자보다 양호함을 나타낸다. 연령별로 보면 일반적으로 나이가 증가할수록 식습관 점수가 좋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식습관 점수와 현재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식습관 점수가 하위 25%(백분위수)인 식습관 불량군, 식습관 점수가 25-75%인 균을 식습관 보통군, 식습관 점수가 75%이상을 양호군으로 나누어 현재의

5. 건강 및 식생활 영역

1) 체위 및 건강상태

조사대상자의 남자의 평균 키는 171cm이고, 체중은 66kg이었으며, 여자의 평균 키는 159cm, 체중은 54kg이었다. 최고 혈압은 남녀 간에 차이가 있어 남자는 125.8mmHg, 여자는 121.3mmHg로 남자가 약간 높았으며 최저 혈압은 남녀 간에 차이가 없었다. 혈압은 나이가

건강상태를 확인해본 결과, 식습관 점수 양호군에 건강상태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이 높았고(표14), 식습관 점수 불량군에는 몸이 약한 편이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는 대국민적인 인식전환과, 성인병 및 올바른 식습관을 정착하기 위한 계몽 및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최고혈압은 식습관 점수와 관련이 없었으며, 최저혈압은 식습관 점수의 상, 중, 하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4> 식습관 점수에 따른 건강 상태

N(%)

		식습관 점수	식습관 불량군	식습관 보통군	식습관 양호군
건강 $\chi^2=8.71$ $p=0.191$	현재 병을 앓고 있다.		5(3.5)	18(7.5)	13(9.63)
	특별한 병은 없는 것 같으나 늘 몹시 피곤하고 몸이 약한 편이다.		56(40.0)	72(30.1)	36(26.67)
	감기몸살 정도는 없지만 건강한 편이다.		50(35.7)	100(41.8)	58(42.9)
	아무병이 없이 아주 건강하다.		29(20.7)	29(20.5)	28(20.7)
		계	140(100.0)	239(100.0)	135(100.0)
스트레스 $\chi^2=17.36$ $p=0.008$	비교적 적게 받는 편이다.		26(18.8)	49(20.3)	31(22.9)
	보통이다.		48(34.7)	117(48.5)	68(50.3)
	많이 받는 편이다.		55(39.8)	69(28.6)	33(24.4)
	매우 심하게 받는 편이다.		9(6.5)	6(2.4)	3(2.2)
		계	138(100.0)	241(100.0)	135(100.0)
혈 압	최 고 F=1.36 N.S.		122.7±14.8 <sup>N</sup>	125.0±14.2	121.7±14.1
	최 저 F=3.96 P=0.02		81.6±10.8 <sup>b</sup>	85.1±12.0 <sup>a</sup>	81.5±8.9 <sup>b</sup>

식습관 불량군 : 식습관 점수가 최하위부터 25%(백분위수)까지 기록한 군

식습관 보통군 : 식습관 점수가 전 체중 25%~75%까지 기록한 군

식습관 양호군 : 식습관 점수가 75%부터 최상위까지 기록한 군

그러므로 식습관과 건강상태는 상호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현재병을 앓고 있는 대상자는 식습관 점수의 상위권 비율이 하위권 비율보다 높는데 이는 질병이 발병을 한 이후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때문에 식습관을 개선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질병이 이미 발병한 이후에는 치료하는데 경제적, 육체적, 정신적 손실이 뒤따를 뿐 아니라, 특히 성인병의 경우는 완치 자체가 어려우므로 평소에 올바른 식생활 관리를 통한 성인병의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또한 식습관 점수와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정도를 보면 식습관 점수 양호군은 불량군보다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경향이 뚜렷하였고, 따라서 좋은 식습관과 스트레스는 음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현대인은 많은 스트레스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좋은 식습관의 유지는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한다

### 3) 지역주민의 교육요구도

지역주민이 영양 및 건강과 관련하여 대학이나 보건소 등에 가장 기대하는 프로그램은 건강진단 및 건강상담을 주민의 33.5%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질병 등의 식사요법 지도를 주민의 25.9%가 필요하다고하였다(표15). 간단한 자가 건강 진단 방법, 건강 및 영양 상담 프로그램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영양 교육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질병은 암(32.9%), 뇌혈관 질환(11.5%), 고혈압(10.3%), 치매(8.6%) 순으로 나타나 지역주민에게 심리적으로 가장 부담이 되는 질병으로 그 예방 및 치유책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주민들이 현재 앓고 있거나 과거 앓았던 병이나 증세 중 가장 빈번한 것이 치과 질환(49.4%)이었고, 위장병 및 소화 불량 47.2%, 두통이 39.8%, 변비가 31.6%로 나타나 생활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듯 대전지역 주민의

건강에 악 영향을 주는 질병이 생활습관을 비롯한 식습관에서 비롯되는 질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지역주민에게 올바른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으며, 건강문제 및 영양문제는 연령별, 성별로 나타나는 문제가 다르므로 영양 및 건강 교육에는 연령층별, 성별 등으로 차별화하여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매체의 개발이 필요하다.

<표 15> 건강 및 영양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요구도

프로그램내용	N(%)	프로그램 내용	N(%)
건강진단 및 건강상담	167(33.5)	건강에 관한 교육 및 영양교육	45(9.0)
질병 등의 식사요법지도	129(25.9)	간단한 치료 및 약 처방	39(7.8)
예방접종 및 방역사업	52(10.4)	식생활 진단	16(3.2)
영양상담	50(10.0)	기타	1(0.2)

## V. 결론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위한 제언

### 1. 요약 및 결론

본 연구결과 얻은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 1) 가정관리 영역

대전시 거주 주부들의 시간갈등은 적극적인 여가시간갈등에 비해 가사노동시간등, 소극적 여가시간갈등을 더 크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관리 교육 프로그램은 주부들이 가사노동 시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가사노동에 따른 육체적, 정신적 피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매우 기본적인 시간관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원들이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하며 교육시 자녀교육기에 있는 주부와 자녀교육기를 벗어난 주부 집단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수준이 낮은 주부, 합리적 시간관리를 수행하고 있는 주부등을 위한 대상별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편성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좀 더 효율적 시간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위해서는 주부들의 적극적인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 2) 경제생활 영역

금전관리상의 문제 경험 및 인식에 관한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자원관리 프로그램의 내용에는 장래의 불확실성, 예기치 않은 일에 대비하는 방법과 관련정보를 획득하는 구체적인 방법, 금전관리방식에 관한 것이 중점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특히 충동적인 구매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재정관리에 미숙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선별하여 특별한 가치관 교육이나 기술적교육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교육대상의 선별기준으로 교육수준 등이 이용될 수 있으며, 특히 소득과 자산수준이 낮은 가정을 주대상으로, 돈문제로 인한 가족원간의 갈등해결, 금전적 위기극복(채무극복) 등의 주제로 교육내용 및 상담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전반적인 교육요구도에 대해서는 연령별, 교육수준별, 소득수준별 차이가 없으므로 절반이상의 주민이 효율적인 금전관리 교육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고려하고 일반주민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되, 자산수준이 낮은 주민들의 교육요구도가 높음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3) 자녀 양육 영역

어머니의 연령이 낮고 자녀가 어릴수록, 양육의 경험부족으로 인한 것으로 육아의 지식, 정보제공과 아울러 다양한 양육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부모교육의 훈련이 요구된다. 경제수준이 낮은 경우에 부모역할 수행에 보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제수준이 낮은 집단의 경우 생계유지가 더 우선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점을 감안하여 부모교육 실시 시간, 장소, 비용문제 등의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로 할 것이다. 자녀가 어릴수록 효율적인 부모교육이 보다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이며, 영유아기의 발달적 특성이나 육구수준에 알맞은 구체적인 양육기술과 세부적인 교육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녀양육의 내용에서는 자녀의 사회·정서 발달 및 교육활동과 환경제공면에서 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부모교육프로그램은 교육

대상층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며, 저소득층의 부모나 신혼부부, 예비부모 세대를 포함하여 양육경험이 없는 첫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아울러 사회화과정, 성격형성 및 교육활동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4) 의생활 영역

의류제품 취급시의 소비자들이 가장 흔히 겪는 문제점은 촉감변화, 부속품의 불량, 색상 등의 변화 등이 주된 것이었다. 소비자는 의복을 구입, 사용할 때, 주부 91.1%, 학생 87.2%가 불만을 느꼈으며, 불만의 주된 이유는 세탁후의 변형과 탈색이었고, 다음이 품질 자체의 불량이라고 하였다. 의류제품 취급에 대한 이해도는 주부는 세탁에 관한 사항을, 학생은 다림질에 관한 사항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었고, 주부와 학생 모두 표백에 관한 사항과 섬유 조성의 이해도가 가장 낮았다. 의류제품 세탁시 세탁 방법은 주로 의복에 부착된 취급표시를 보고 나름대로 판단한다가 많았고, 의복의 칫수에 관해서는 소비자의 70% 이상이 알고 있었고, 의복구매시 의복의 칫수는 주로 의복에 부착된 제품의 칫수를 확인하고, 또 직접 입어보고서 선택한다고 하였다. 이로부터 의생활에 관한 소비자 교육프로그램은 섬유조성과 의류제품 취급방법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개발한다. 또, 기업에서는 의류제품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 5) 건강 및 식생활 영역

식습관이 좋을수록 건강상태가 양호하였으며 스스로 느끼는 건강자각율도 좋았으며,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있어 좋은 식습관의 유지 현대인의 건강에 매우 중요함을 알수있어 식습관교육이 실시되어야 함을 알수 있었다. 지역주민이 가장 우려하는 질병은 식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는 암, 고혈압, 뇌혈관 질환 등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빈번히 이환되는 질병 혹은 증상으로는 치과 질환(49.4%), 위장병 및 소화 불량(47.2%), 두통 (39.8%), 변비 (31.6%) 등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식생활에 관한 교육에 관한 주민의 요구도도 건강상담과 질병에 관한 식사요법 지도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한바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적절한 건강을 위한 영양, 운동, 휴식을 포함한 생활모형의 개발이나, 이에 관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주민교육을 위한 첫단계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교육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교육 대상자의 특성에 맞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육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사회 봉사 및 사회교육의 일환으로 대학 부설 연구소나 지역사회의 기관, 사회복지 기관, 산업체 등에서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많은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 2. 대전 지역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 프로그램 모형 개발

본 연구결과 대전 지역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대학의 사회교육프로그램 개발시 각 영역에서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대학내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모형은 <표 16>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겠다. 교육 기간은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사회교육이므로, 대학의 교과과정을 기준으로 하여 1학기 단위로 하고, 1주에 3시간씩 교육하는 것으로 하여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교육 대상자는 1학기 내용을 모두 다, 혹은 각 영역별로 필요한 부분을 수강할 수 있게 설계하였다. 대상별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각 영역에 대한 교육 내용을 대상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프로그램 내용을 가감할 수 있겠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본 논문 결과 내용을 중심으로 추후에 이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표 16> 지역주민을 위한 대학의 사회교육 프로그램

영역	기간	주요 대상자	프로그램 내용	강의활동 및 세부사항
가정 관리	1 주	주부 주부 취업여부 에 따른 분반	- 시간자원관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 인식하기 - 시간자원 관리상의 문제점 파악하기	강의
	2 주		- 주부의 시간갈등 요인에 대해 파악하기 - 가사노동시간 갈등, 소극적 혹은 적극적 시간 갈등 대처하기	강의 및 경험담 토론
	3 주		- 여가시간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교육	강의 및 토론
	4 주	자녀가 있는 주부	- 시간관리를 잘하는 방법 및 전략에 대한 교육	강의
경제 생활	1 주	주부	- 금전관리의 필요성과 가정경제에서의 중요성 인식하기 - 금전관리상 자신의 취약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강의 활동 및 실습
	2 주		- 장래의 불확실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동기유발 - 금전관리 기법 및 생활설계 방법 강의 - 구체적인 장래 생활설계 세워보기	강의 강의 활동 및 실습
	3 주	교육수준별 분반	- 소비적 성향 파악 및 대처방안 학습하기: 소비생활의 합리화를 이룸.	활동 및 실습 강의
	4 주	특히 소득, 자산수준이 낮은 주부 대상	- 바람직한 경제가치관 모색하기 - 재무적 위기의 종류 파악하기 - 재무적 위기 극복하기: 문제를 드러내고 해결책을 탐구하는 태도확립 및 해결책 모색.	강의 및 토의 집단 및 개별 재무상담
자녀 양육	1 주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	- 부모역할의 중요성 인식하기 - 부모역할 이해하기	강의 활동 및 실습
	2 주		-자녀의 발달과정에 대한 지식습득 (인지발달, 사회·정서발달, 신체발달)과 발표, 토의	강의 및 실습 경험담 발표
	3 주		-바람직한 교육환경이란? 교육의 시작시기, 환경제공, 교육방법 -자녀를 위한 교육활동 방법의 사례 연구	강의 활동 및 실습
	4 주		-자녀를 위한 습관 형성, 가치관 교육은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강의 및 토의 방법 모색하기
의생활	1 주	주부 및 학생	- 의류제품의 소비성능 및 성능저하	강의
	2 주	주부 및 학생, 학생 중점 교육	- 의류제품의 품질표시에 대한 이해 및 섬유의 품질에 따른 의복의 관리 방법	강의 및 실습
	3 주	주부 및 학생	-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 및 소비자 불만 사항	강의
	4 주	주부 및 학생	- 의복구입시의 자신에 맞는 의복선택 방법	강의 및 실습
건강 및 식생활	1 주	지역주민 전체, 성인병 예방을 위한 청장년층	- 식생활 진단 및 간단한 건강상태 진단	진단 및 강의
	2 주		- 건강에 좋은 생활습관과 식습관 교육 - 각 연령층에 맞는 적당한 운동량, 식사내용, 휴식량 제시 및 상담	강의 및 실습
	3 주	성인병 환자	- 이환율이 높은 질병(치과질환, 위장병, 변비, 여성의 경우 산부인과질환)에 관한 식사요법,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강의 및 개별상담
	4 주	환자의 가족	- 우려되는 질병(암, 고혈압, 뇌혈관질환 등)에 대한 식사요법 예방 및 대처방안 교육	강의 및 개별상담

## 참고문헌

- 고정자, 김갑숙(1996), 가족응집성, 적응성 및 스트레스 인지수준이 맞벌이 부부의 생활의 질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1), 65-78.
-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전략",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미(1993), 도시가계의 재정상태, 재무관리 및 재정적 만족의 관계분석: 체계론의 적용가능성 검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2), 195-207.
- 김지연(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행동이 시간갈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련(1996),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영양 부문의 2000년 잠정목표와 전략. 지역사회 영양학회지: 1(2), 161-177.
- 문숙재(198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대한 의식과 실태조사", 논총, 37,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편).
- 문숙재(1997), 생활시간 연구, 학지사.
- 문숙재·정은숙(1985), 도시가정의 생활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3(3), 149-168.
- 민동원, 이은영(1990), 기성복 구매 및 사용할 때 불만족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4(2), 3-12.
- 박미은(1993), "취업주부의 시간제약 지각에 따른 가사작업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영애·정옥분(1996).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자존감의 관계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4(1), 38-45.
- 박해미(1994). 자녀양육 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보건사회연구원(1995), 국민건강증진법.
- 소연경·문숙재(1983), 가정생활의 질 측정을 위한 예비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창간호, 43-52.
- 윤정혜(1986). 도시저소득층 소비자의 경제문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2), 147-157.
- 윤혜리(1996),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과 심리적 복지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승미(1989), "주부가 지각한 시간제약과 가사노동 수행방안",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 임혜경(1992), 1980년과 1990년 도시주부의 생활시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31(4), 261-278.
- 전효순(1984), 시판 의류제품의 구매과정에 나타난 소비자 불만족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조성은(1991), 주부의 가사노동 시간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자령(1991), "취업주부의 역할관리 전략과 역할갈등 수준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 1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채정숙, 조희금, 박충선, 정영숙(1996), 경산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실태 파악 및 복지대책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4(5), 13-27.
- 통계청(1995), 사망원인 통계원보.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 홍금희(1991), 의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의 종적 연구: 구매시 만족과 사용할 때 만족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5(1), 3-14.
- Churaman, C. V.(1989). PMMP: A new tool for teachers and counselors. Advancing the Consumer Interest, 1(1), 14-18.
- Davis, E.P. & Carr, R.A.(1992). Budgeting practices over the life cycle.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3, 3-16.
- Dessart, W.C.A.M. & Kuylen, A.A.A.(1986). The nature, extent, causes, and consequence of problematic debtsituations. Journal of Consumer Policy 9(3), 311-334.
- US DHHs(1995), Healthy People 2000: Midcourse Review and 1995 Revisions.
- WHO(1990), Diet, Nutrition, and the Prevention of Chronic Diseases, WHO

---

Technical Report Series. No.797.

猪子忠徳, 岡野志郎(1985), 品質評價と衣生活,  
纖維製品消費科學, 26(12), 498-506.

林泰子, 伏木 美紀子, 吉川 清兵衛(1983), 纖維  
製品の 苦情と 消費者教育, 纖維製品消  
費科學, 24(6), 234-243.

下村 壽(1989), 消費者の教育について, 織消誌,  
29(4), 133-136.